



이탈리아 총리 "휴교령 당장 해제 안해...9월 정상화 방침"

기사입력 2020-04-26 21:54

현지 언론 인터뷰..."내달 4일 대부분의 회사·공장 운영 정상화"



코로나19 장기 휴업 벗어난 이탈리아의 서점들(로마 AFP=연합뉴스) 이탈리아 정부가 영업 재개를 허용함에 따라 20일(현지 시간) 다시 문을 연 로마의 서점에서 손님이 책을 고르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전국의 서점과 문구점, 유아 의류·용품 판매점에 한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jsmoon@yna.co.kr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 정부가 휴교령을 다음 학기가 시작될 때까지 유지할 방침임을 공식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발효 중인 봉쇄 조치의 단계적 완화 일정표에 당장은 학교를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주세페 콘테 총리는 26일(현지시간) 발행된 현지 일간 '라 레푸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현시점에서 학교 문을 다시 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이러한 정부 방침을 밝혔다.

이탈리아 정부는 바이러스가 가파르게 확산하던 지난달 초 대학을 포함한 각급 학교를 잠정 폐쇄하고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도록 한 바 있다.

콘테 총리는 인터뷰에서 선불리 학교를 개방할 경우 바이러스가 재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학생들의 등교 가능 시기를 9월로 못 박았다.

이탈리아의 다음 학기 시작 날짜는 9월 2일이다. 이번 학기를 휴교령 상태에서 종료하고 다음 학사일정부터 정상화하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콘테 총리는 봉쇄 조치 종료 하루 뒤인 내달 4일부터 상당수 기업·공장 운영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수출품 등을 생산하는 전략적 생산활동의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사회경제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는 봉쇄 조치를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외출제한령 속에 두 달 가까이 사실상의 '가택연금' 생활을 해 온 국민에게도 제한된 범위의 이동·여행의 자유가 허락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콘테 총리는 "이동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현재의 엄격한 외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주(州) 내에서의 돌아다니는 것은 완전 자유화하되 다른 주로의 이동은 여전히 건강·보건, 업무 등 필수 사유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또 내달 11일 일반 상점이 문을 열고, 18일부터는 식당·술집 등이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난달 9일부터 차례로 전국 이동제한령과 휴교령, 비필수 업소·사업장 잠정 폐쇄 등의 고강도 봉쇄 조치를 발효 중이며, 그 시한은 내달 3일까지다.

25일 기준으로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9만5천351명으로 미국, 스페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 사망자 규모는 2만6천384명으로 미국 다음이다.

lucho@yna.co.kr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에서 [구독 클릭]

▶[팩트체크] 국제원유가 마이너스면 휘발유 공짜? ▶제보하기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1572561>
